



산 좋고 물 맑아 예로부터 금수강산으로 불리워온 이 땅에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명승지, 명승들이 수없이 많다.

신평군에 위치하고있는 신평금강은 아호비명산줄기에 자리잡고있는 명승지이다.

명승지들은 어느것이나 다 자기의 독특한 자량이 있는것처럼 신평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은 계곡경치이다.

신평금강은 좋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채로운 풍경속에 청신함과 황

독특한 계곡미를 자랑하는 신 평 금 강

혼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계곡에 펼쳐진 가지가지의 경치와 명승지들과 구별된다.

특히 사시절 마를 줄 모르는 맑은 물이 협곡마다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윽한 정서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드문것이다.

진주계곡과 금강계곡, 장수봉계곡, 옥류동계곡 등 신평금강의 8대

산지에 깊숙이 들어앉아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다.

하나의 자연풍경을 보시고도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수수천년 묵혀있던 도화동은 신평금강이 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한껏 자랑하는 신평금강명승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아름다운 꽃풍경을 펼친 중앙식물원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공화국의 식물과학연구기지이며 교육교양기지, 인민들의 문화휴식장소인 중앙식물원에 요즘 꽃게질이 한창이다.

마치 화려한 꽃주단을 펼쳐놓은듯싶은 잔디플록스초절전이며 붉은꽃철쭉수, 향철쪽나무 등 신물식물물의 사연깊은 식물들에도, 두봉화와 붉은겹꽃복숭아나무 등 식물분류구의 다양한 품종의 꽃나무들에도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장미원에서는 노랑해당화, 황매화 등의 꽃들이 매력적인 모습을 한껏 자랑하고 약초원에는 황복련의 꽃향기가

차고넘친다.

중앙식물원 일군의 말에 의하면 식물원에서는 3월중순부터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꽃나무들과 화초들이 마치 정해진 순서가 있는듯이 차례로 피어나 아름다운 꽃풍경을 펼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4월부터 6월에 가장 아름다운 꽃풍경을 이룬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할박꽃이 피어나는데 그 경치 또한 불만하다고 한다.

계절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중앙식물원의 풍치라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참등나무꽃이 만발한 곳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

내는 사람들도 있고 꽃나무 앞에서 교린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관찰을 진행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다.

곳곳에서 화관을 펼칠듯하고 아름다운 꽃풍경을 화폭에 담아가는 미술가들의 모습도 보인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와 새로 일떠선 화성거리며 붉은 평양의 거리들과 련호선실용장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중앙식물원에서 가꾼 꽃나무들이 가당치 않은 곳이 없다.

사람들은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난 중앙식물원의 풍치에서 더욱더 아름다와질 이 땅의 모습을 안아보고 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건강증진에 리용되는 은행나무잎과 열매

공화국에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그 잎과 열매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평양시의 거리들과 각지에 심은 아름답게 단풍든 은행나무들에서는 해마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평양시의 4만여그루 암나무에서 열매를 따들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수확량은 대단히 많다고 한다.

공화국에서는 건강장수의 명약으로 알려진 은행나무잎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있다.

은행나무잎의 음료제조과

백사혈화

옛날 명궁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따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활쏘기솜씨를 자랑하곤 하였는데 10대의 화살중 8~9대를 파격에 명중하곤 하였다.

그가 파격을 명중할 때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추어주면 그는 더욱 으쓱해하곤 하였다.

어느날 그는 한 기를 활쏘기를 보면서 머리를 끄덕끄덕할뿐 도무지 감탄하는 빛을 띠지 않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기분이 잡쳐서 물었다.

《로인장도 궁술에 대해 좀 아시는 모양인데 제가 쏘는것이 어떻습니까?》

《인자의 궁술이 그만하면 괜찮아. 그렇지만 그속에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건 아니냐. 오직 숙련을 많이 한 결과이지.》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더욱 화가 나서 물었다.

《로인장이 제 재간을 우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대중가무 - 농악무

예로부터 슬기롭고 정서가 풍부한 우리 선조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대중적인 가무인 농악무를 즐겨 하곤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농악무와 더불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농악무를 신나게 벌리면서 곡식을 가꾸고 길어들이었다.

농악무는 언제나 온 마을을 들썩거리게 하고 일손을 다그치도록 고무하였다.

길을 뚫거나 물길을 내고 뚝을 쌓는 등 농사와 관련된 일이 벌어진 곳에는 언제나 농악소리가 높았으며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년치고 농악무가 가장 큰 규모에서 벌어지고 제일 크게 힘을 낸것은 모내기때와 김매기때였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를 선두에 든 농악대가 마을을 돌면서 한바탕 흥을 돋우어 사람들을 농사일로 불러냈으며 밭둑뚝이나 논언저리에 서서 메나리(농부가의 한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선소리를 먹으면 뒤이어 서로를 받아가면서 승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흥겨운 장단을 타고 울리는 청높은 농악소리는 농군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였으며 흥얼흥얼 따라부르면서 힘든줄 모르고 신바람나서 일하게 하였다.

농악무에서 제일 기량이 높고 또 불만없는 상모춤이었다.

상모춤은 농악무에만 있는 특색있는 춤으로서 열두발이나 되는 상모를 여러가지 모양을 지으며 돌리면서 우리 민족무용예술의 장쾌함을 한껏 펼치었다.

농악무는 타악기들의 장단가락과 새납의 선물가락으로 이루어져서 서로를 받아가면서 승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흥겨운 장단을 타고 울리는 청높은 농악소리는 농군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였으며 흥얼흥얼 따라부르면서 힘든줄 모르고 신바람나서 일하게 하였다.

일참에도 농악무가 벌어졌으며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농악대를 앞세우고 노래하고 춤추며 마을로 들어섰다.

농악무에서 제일 기량이 높고 또 불만없는 상모춤이었다.

상모춤은 농악무에만 있는 특색있는 춤으로서 열두발이나 되는 상모를 여러가지 모양을 지으며 돌리면서 우리 민족무용예술의 장쾌함을 한껏 펼치었다.

농악무는 타악기들의 장단가락과 새납의 선물가락으로 이루어져서 서로를 받아가면서 승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흥겨운 장단을 타고 울리는 청높은 농악소리는 농군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였으며 흥얼흥얼 따라부르면서 힘든줄 모르고 신바람나서 일하게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로리 도라지나물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도라지를 식생활과 여러가지 병치료에 많이 써왔다.

도라지는 진정, 아픔잇, 열내림, 중추억제, 항염증, 피졸확장, 항계양작용 등 여러가지 작용을 한다.

또한 고려치료에서 가래삭임약으로서 기침, 기관지염,

편도염, 인후아픔때 쓴다.

특히 인삼대용으로 도라지를 오래 쓰면 건강에 아주 좋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라지 1kg일 때 마늘 50g, 사랑가루 20g, 고추기름 20g, 깨가루 2g, 소금 10g, 식초 20g을 준비한다.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 소금과 함께 주물러주면서 씻어 쓴맛을 우린다. 마늘은 다진다.

쓴맛을 우린 도라지에 고추기름, 다진 마늘, 사랑가루, 식초, 깨가루, 소금을 두고 고무 무친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 도라지나물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관 설 (2)

글 김 석 문, 그림 채 대 성

《휴... 이런걸 흔히 반전이라고 하지. 변호사가 되려면 저쪽은 해야 돼. 눈앞에서 불붙인 살인범을 놓고서도 무죄판결 이끌어낼 담기가 있어야 하거든. 민군은 보아하니 변호사감이야.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안돼. 근거가 있어야지.》

의아함과 호기심, 비웃음의 눈길들이 민계식의 몸을 울리도록 내리쬐었다.

민계식은 큰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가방을 열고 그안에 한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돌맹이 하나를 불쑥 꺼내드는것이였다.

《예, 저게 뭐야? 저걸로 뭘하려고?》

놀란 눈빛들이 민계식의 중앙에 쬐어진 돌맹이에 모여들었다.

천천히 머리위로 쳐들리우는 돌맹이를 따라 휘둥그레진 실어쌍의 눈동자들이 초

점을 맞추었다.

《바로 여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옆에서 그 모양을 지켜보던 박준표가 가만히 민계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플래쉬를 쬐는것은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수 없어.》

무죄의 근거가 손에 든 돌맹이에 있다고 하니 그안에 무슨 소용돌음기라도 장막되어있는줄로 아는 모양이였다.

민계식은 피씩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목숨이 같은건 없어. 이 건 그냥 돌맹이.》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들고 흥교수와 자기를 주시하는 여러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 계속했다.

《아니, 그냥 돌이 아니라 피고의 무죄를 증언해줄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난데없는 돌의 출현에 좌중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문득 교수의 목소리가 정적 긴 방안에 파문을 일구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해도 뭔가 독특한 면이 있구만. 그럼 박군의 기소장은 이미 들었으니 변호는 저 친구에게 맡기기로 하지. 기타 나머지 학생들은 기소인단이나 변호인단 등 각자 마음에 드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도록. 판결은 내가 내리도록 하겠소. 실제 피고는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니 으로나마한거고. 그럼 민군, 피고석에 피고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변론을 시작하시오.》

《예.》

민계식은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숨을 고르었다.

조금 동안이 흐른 뒤 민계

나섰던 유강산로인이라는 겁니다.》

순간 놀라움에 찬 소음들이 교실안을 흔들었다.

《그때 닭알을 날리구 오늘은 돌맹이로!...》

《결국 전과자라는건가?..》

박준표가 참지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민군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형법 제264조 상습범 처벌원칙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9년형을 언도받았겠군요.》

박준표의 눈짓을 받고 박준표가 입을 열었다.

《마땅한 동기가 있다면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민계식이 선선히 머리를 끄덕였다.

《웁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아니라 왜 들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교수님은 20여년전에 동일한 사건장에서 발생된 닭알투척사건을 상기시키셨는데 제가 파과제행을 위해 사건을 파악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 본행 비행기를 타러던 《대통령》 특사를 향해 붉은 뺨기가 담긴 닭알을 투척했던 인물이 바로 얼마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돌을 들고

《뒤라? 자리에 앉아!》

랑- 하고 교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배군은 주의 세번이요.》

다시 교탁을 툭툭 두드리 는 소리가 들렸다.

《정중하시오. 예, 여기는 모두 앞으로 범조인이 될 일념으로 그 준비과정을 밟고있는 학도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요. 그러나 각자는 이동안에 각종 법률행위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뿐 아니라 범조인으로서의 기풍까지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오. 현대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과정을 신성시하지 못하는것은 범조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되고 오. 정식재판이 아니라 모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법을 배우고있는 학도들로서는 응당 몸가짐을 바로하고 발언 하나하나도 심중히 해야 할것 이요.》

잔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교실안에선 오직 흥교수의 목소리만이 계속 울렸다.

《예, 기소축을 대표하여 박군은 앞서 요구했던 징역 6년형의 주장을 거두고 피고에게 징역 9년형을 언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하였소. 변호사측 민군, 변론을 계속하시오.》

《예.》

민계식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사측에서는 방금 유로인을 상습범으로 몰아붙였는데 이것은 사건에 대한 단순한 고찰이외에 달 리 불수 있습니다. 《움직이는것은 모두 다른 어떤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것이 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상기해볼 때 저는 유로인의 그 모든 행동을 낳게 한 궁극적인 원 동기에 대한 다면적이며 해부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여년전에 닭알을 들고 나섰던 로인이 어찌하여 오늘은 그 손에 돌맹이를 들게 되었는가. 누가 그의 손에 돌을 쥐어주었으며 누가 그를 이 재판정의 피고석으로 몰아세웠는가. ...이런것 들은 모두 유로인에게 공 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반드시 행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여 저는 이 모든 의문점들에 답변을 줄수 있는 한 인간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변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